



제목	페르시아 사산제국 정치사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예영커뮤니케이션
발행일	2011. 4. 10.
저자	압둘 호세인 자린쿠, 루즈베 자린쿠 태일 옮김
출판국가	한국
페이지수	188
ISBN 또는 ISSN	978-8983507563

### 내용 요약

이 책은 아르다시르 1세부터 야즈데게르드 3세까지 사산제국의 왕들을 연대순으로 정리한 역사 입문서이다. 사산제국은 파르티아의 내분에 힘입어 지방 영주였던 아르다시르 1세가 파르스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성립되었다. 아르다시르 1세는 다리우스 3세의 후손이자 아케메네스 제국의 보존자로 알려지면서 제국의 정당성과 통치 기반을 강화하였다.

샤푸르 1세는 로마 고르디아누스 황제와의 영토 분쟁, 아르메니아 문제로 인한 로마와의 충돌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샤푸르 1세 사망 후에는 후계자들의 짧은 치세와 조로아스터교 사제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했다. 사제들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왕권 강화 작업에 성공한 국왕은 샤푸르 2세였다. 그는 로마 황제의 사망과 메소포타미아 지역 탈환이라는 업적을 이루었다. 그의 사망 후에는 사제들의 권력 강화, 비잔틴제국과의 전쟁, 아르메니아의 영토 분쟁 등이 치열하였다.

사산제국은 비잔틴제국과 전쟁과 동맹을 반복하면서도 내부적으로 귀족, 황실의 세력가, 조로아스터교 사제들의 권력투쟁으로 인한 국왕의 짧은 치세로 혼란과 무질서의 시대를 겪었다. 결론적으로 사산제국을 강하게 키워던 요인은 정치적으로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와 종교적으로 조로아스터교를 중심으로 한 정교일치 정책이었다. 또 외교적으로는 로마에 수동적이었던 파르티아와 달리 적극적인 팽창 정책을 추구한 덕택이었다. 하지만 역으로 정교일치 정책은 왕실 구성원들과 조로아스터교 사제들의 제위 다툼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로마제국 및 비잔틴제국과의 전쟁은 지속적, 소모적인 전쟁으로 인한 국력 쇠퇴를 초래하였다.